

### <난이도>

上(0) : 中(3문항) : 下(17문항) 비율로 2016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 난이도 상(上)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양명학 관련 정제두 문항’이 있긴 하지만 지문 해석 여하에 따라 쉽게 해결할 수 있기에 난이도 중(中)으로 구분하였다. 3문제를 감안하여 합격선은 85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항 구성>

전반적으로 익숙한 주제들로 구성되었으나 지문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이자겸, 장길산 관련 문항)가 조금은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보기 선택 5문항, 인물·시기 확인 5문항, 순서 나열 3문항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적인 시대 구성은 전근대 13문항 : 근·현대 7문항의 비율로 2016년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전근대에서는 정치사 4문항 : 문화사 5문항 : 경제·사회사 2문항 : 발해 통합 1문항의 비중으로 구성되었다. 근·현대사는 근대 사회의 전개와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에서 각각 3문항, 현대 사회의 발전은 1문항이 출제되어 2016년에 비해 현대 사회의 발전의 비중이 1문항 적게 출제되었다.

### <문항 분석>

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맹 왕국	• 부여			
얼굴 시대	• 대가야			• 무령왕릉
남·북국 시대	• 진성여왕			
고려 시대	• 이자겸			
조선 전기		• 관료의 경제 기반		• 16 ~ 17C 그림
조선 후기			• 장길산의 활동	• 정제두의 양명학 연구 • 조선 후기의 역사서
근대 사회의 전개	• 조·미 수호통상 조약의 체결과 내용 •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 갑오 1차 개혁의 내용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 연해주에서의 독립 운동 기지 건설 •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 1920 ~ 1930년의 해외에서의 무장 독립 운동의 전개			
현대 사회의 발전	•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통합	• 발해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 • 고려와 조선의 과거 제도 • 유네스코 등재 세계 기록 유산			

### <학습법>

공무원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 학습이다. 더불어 학습 방식은 암기를 통한 이해이다. 문제가 대부분 지식을 측정하는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사실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꼼꼼한 기본 개념 학습을 진행하고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하는 학습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문제 풀이 학습 또한 개념 학습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이다. ‘세밀한 기본 개념 학습, 기출 문제 풀이, 실전 모의고사 연습, 반복하는 개념 확인’ 이것이 공무원 합격의正道(正道)이다.

## 01. 열국시대 - 대가야의 성립과 발전

주어진 자료의 ‘시조 이진아시왕, 뇌질주일’ 등을 통해 대가야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① 6가야 연맹의 초기 주도국은 김해의 금관가야였으나, AD. 400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쇠퇴하여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② 가야 연맹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대가야), 김해 대성동 고분군(금관가야), 함안 말이산 고분군(아라가야), 부산 복천동 고분군 등이 있다. ④ 대가야는 섬진강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5세기 중반 운봉 고원을 넘어 전라북도 지역으로 진출하였고, 6세기 전후로 이 지역을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그렇기에 전라북도 동부 산악지대인 진안·장수·임실·남원 등지에서는 가야 계통의 유물이 대거 발견된다. 이들 지역에서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백년 이상 가야 계통의 고분이 축조된 것으로 보아 대가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가야연맹의 작은 나라들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따르면 수로왕의 부인인 허황옥(허황후)은 인도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답】 ③

## 02. 고려와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

① 고려의 문과에는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을 시험하는 제술업과 유교 5경의 이해 정도를 시험하는 명경업이 있었는데 제술업을 보다 중시하여 명경업에 비해 10배 이상 인원을 선발하고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② 조선의 잡과(雜科)는 전문직 중인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역과·의과·음양과·율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관료이기는 했지만, 양반과 양인 사이의 중간 신분층을 구성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인(中人)이라 하면 역관(譯官)·의관(醫官)·음양관(陰陽官)·율관(律官)·산원(算員)·화원(畫員)·악원(樂員) 등의 기술관뿐만 아니라 서리(胥吏)·향리(鄕吏), 서얼(庶孽) 등 포괄되는 층이 넓다. 잡과 중인은 그 중에서도 상급 기술관으로 잡과(雜科)에 합격한 이후, 역관·의관·음양관·율관으로 진출한 본인 및 혈연과 통혼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가계 구성원까지 포함하는 범주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잡과 합격자라는 점에서 여타의 일반 기술관들과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선발 양식의 차이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처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잡과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곧 기술관으로서의 입지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고위직 기술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담보해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참서관[종6품(品) 이상]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잡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잡과 중인은 국가의 각종 행정 실무와 실용 기술을 담당했던 실제 운영자들이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행정 실무와 실용 기술을 통하여 양반 못지않은 지식과 경제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닌 직능(職能)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 문제화 되었다. 법규상으로는 정3품(品) 당하관이 한품(限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는 고위 관품과 동반직(東班職)을 제수받기도 했다.

③ 고려의 과거는 계수관시(향공, 상공, 빈공) → 국가감시(진사시, 사마시) → 예부시(동당감시)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국가감시는 계수관시에서 합격한 상공(개경)·향공(지방)·빈공(외국인)이 응시하였는데, 그 중 상공은 개경의 국가감생과 사학 12도의 학생이 주를 이루었다. ④ 조선 시대에는 고려와 달리 음직을 통해서만 고위 관직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 조선에서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문관은 삼사의 언관(言官), 무관은 선전관(宣傳官) 등 청요직(淸要職)을 거쳐야 했다.

【정답】 ①

## 03.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과 내용

①은 1882년 4월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전문 14조로 된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조정(居中調整)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 보장, 제2조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의 한 개체로 인정하고 공사급 외교관을 상호 교환한다. 제4조 치외법권(治外法權)은 잠정적이다. 제5조 관세자주권을 존중한다. 제14조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공민에 대하여 항해·통상·정치·기타 어떠한 통교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상인(官民商人)에게도 무조건 균점(均霑)된다는 최혜국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다른 조약에 비해 무엇보다 불평등이 배

제된 주권 독립 국가 간의 최초의 쌍무적 협약이었다.

② 청의 중재로 체결되었다. ③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일 무역 규칙(제1차 조·일 통상 장정)의 내용이다. ④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조선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다.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은 1882 ~ 1883년에 거쳐 체결되었다.

【정답】 ①

#### 04. 1910년대 연해주 지역의 독립 운동 기지 건설

신한촌(新韓村, = 新開拓里), 이상설(1870 ~ 1917), 성명회(聲明會), 전로한족회중앙총회, 대한국민의회 등을 통해 밀줄 친 ‘이곳’은 연해주 지역임을 알 수 있다. ㉠ 신한촌에서의 1910년대 초기 한인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권업회(勸業會)의 항일 민족 운동이다. 권업회는 신한촌 건설과 같은 시기인 1911년 5월에 조직되어 1914년 9월까지 3년여에 걸쳐 활동한 한인 결사였다. 권업회는 조국 독립을 위한 계몽 활동과 민족주의 교육, 농상공업 등 실업 권장을 통해 한인 사회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면서 독립 전쟁론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 이념으로 삼았다. ㉡ 1914년은 러·일 전쟁 10주년이 되는 해로 러시아에서는 전쟁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개전설(開戰說)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권업회는 시베리아와 만주, 미주에 널리 퍼져 있는 무장력을 갖춘 각 독립 운동 단체를 모아 독립 전쟁을 구현할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 신흥강습소는 경학사(耕學社)의 부속 기관으로 1911년 서간도의 삼원보에 설치되었다. ㉣ 동제사(同濟社, = 재상해한인공제회)는 1912년 상하이에 설치되었다. 회원은 300여 명에 달하였고, 구미 각지에 사무실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그 뒤 중국의 혁명 지도자들과 보다 깊은 관계를 유지코자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조직, 중국 국민당과 사회 유명인사를 가입시켜 독립 운동에 중국인의 지지를 받고자 노력하였다. 1913년 12월에는 독립 운동을 담당할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박달학원(博達學院)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정답】 ②

#### 05. 발해(698 ~ 926)의 정치·경제·사회·문화

① 발해 문왕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자신을 황상(皇上)이라 칭하였고, 정해·정효공주 묘비에는 문왕의 칭호가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발해가 당에 수출한 주요 품목으로는 모피, 우황(牛黃), 인삼, 말, 숙동(熟銅), 불상, 자기(발해 삼채) 등이 대표적이다. ③ 발해의 상경성(上京城)은 당의 장안성(長安城)을 모방하여 조성하였다. 성터는 무단강(牡丹江) 이북쪽과 서쪽을 에워싸고, 외성(外城, 羅城)은 동서남북의 네모꼴로서 높이 4m의 토성으로 두르고, 중앙 북방에 다시 황성(皇城, 內城)을 쌓았다. 또한 황성 남문에서 외성 남문까지를 연결한 일직선의 주작대로(朱雀大路)를 중심으로 좌경(左京)·우경(右京)으로 갈리고, 이것을 다시 여러 조방(條坊)으로 나누었다. 황성 안에는 궁전 터가 여섯이 남아 있고, 그 가운데 하나에는 오늘날의 온돌 시설을 하였음이 발견되었다.

④ 중앙의 주요 관서에 복수(複數)의 장관을 임명한 것은 통일 신라이다.

	구성	기능	장관	치린	
3성 6부	정당성	정무 집행	대내상	좌사정(총부·인부·의부)	좌윤(작부·창부·선부)
				우사정(지부·예부·신부)	우윤(용부·계부·수부)
	선조성	정책 심의	좌상	좌평장사	시중
1대	중대성	정책 수립	우상	우평장사	내사
	중정대	감찰	대중정	소정	
7시	전중시	황제의 물품 관리	대령	소령	
	종속시	황제의 친인척 관리	대령	소령	
	태상시	제사 관리	경		
	사빈시	사신 접대 관리	경		
	대농시	농업 업무 수행	경		
	사장시	외국 무역품 관리	영	승	
	사선시	궁중 잔치 관리	영	승	
1원	문적원	도서 관리	감	소감	
1감	주자감	중앙 교육 기관	감	장	
1국	향백국	환관청(宦官廳)	상시		

【정답】 ④

## 06. 조선 전기 관원의 경제 기반

주어진 자료를 시기에 맞게 추론하는 문제이다. ① 1570년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수공업 생산 방식은 관청수공업으로 공장안에 기록된 장인들을 일정 기간 관청에 예속시켜 필요 물품을 생산하였다. 부역 기간 외에 장인들은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③ 관원의 사전(私田, 사유지)은 병작반수의 지대 방식으로 소작될 수 있었다. ④ 1568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한양의 경창(光興倉)에서 관리들에게 녹봉(祿俸)을 지급하였다.

② 관료에게 수조지를 지급하여 조세를 징수하게 하는 전주전객제의 토지 운용 방식은 1556년에 폐지(직전 폐지)되었다. 이후 관료들의 급여 체제는 현물 녹봉제로 전환되었고 토지 경영은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1/10의 수조(收租)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다.

【정답】 ②

## 07. 신라 하대 진성여왕(51대, 재위 887 ~ 897) 대의 사실

진성여왕은 즉위 직후 주(州)·군(郡)에 1년의 조세를 면제해 주고, 황룡사(皇龍寺)에 백좌강경(百座講經)을 설치하는 등 민심 수습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888년 2월 숙부(叔父)이자 남편이던 상대등(上大等)위홍(魏弘)이 죽자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다. 이와 함께 대야주(大耶州)에 은거하던 왕거인(王巨人)이 국왕을 비판하는 일이 생기고, 주·군으로부터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국고가 비게 되었다. 이에 관리를 각지에 보내 세금을 독촉했고, 이를 계기로 ③ 889년 원종(元宗)과 애노(哀奴)가 사벌주(沙伐州, 상주)에서 난을 일으켰으나 토벌하지 못하였다. 이 난을 계기로 계속적으로 적당(賊黨)의 난이 일어났다. ④ 891년에는 북원(北原, 원주)의 양길(梁吉)이 부하인 궁예(弓裔)를 동쪽으로 원정시켜 명주(溟州, 강릉)까지 함락시켰다. ① 892년 견훤(甄萱)이 무진주(武珍州, 광주)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895년에는 영주(榮州)를 손에 넣은 궁예가 다시 저족(猪足)·생천(生川)을 거쳐 한주(漢州)·철원(鐵圓)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라의 실질적인 통치 영역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그치고, 국토의 대부분은 적당이나 지방 호족 세력의 휘하에 들어갔다. 또한 896년에는 적고적(赤袴賊)이 경주의 서부 모랑리(牟梁里)까지 진출해 민가를 약탈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唐)에 유학하고 돌아온 최치원(崔致遠)은 894년에 시무 10조(時務 十條)를 제시하였다. 이 제의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진골 귀족의 반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최치원의 개혁안은 6두품 중심의 유교적 정치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으므로 진골 귀족의 이익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진성여왕은 897년 6월 조카인 헌강왕의 아들 요(峽, 52대 효공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해 12월에 죽었고 황산(黃山)에 장사지냈다.

② 궁예는 901년 송악에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904년 국호를 마진(摩震, 연호 무태)으로 변경하고 905년 철원으로 천도하였으며, 911년에는 국호를 다시 태봉(泰封, 연호 수덕만세)으로 변경하였다. 궁예의 이러한 활동은 모두 효공왕(52대, 재위 897 ~ 912) 대의 사실이다.

【정답】 ②

## 08. 연맹 왕국 - 부여

『삼국유사』 위서 동이전 부여조(夫餘條)

장성(長城)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玄菟)로부터 거리가 천리이며, 남쪽으로는 고구려(高句麗)가 있고, 동쪽으로는 읍루(挹婁)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선비(鮮卑)와 접하며, 북쪽에는 약수(弱水)가 있으며, 그 둘레는 2천리에 이른다. 그 백성들은 토착 생활을 하며, 궁실과 창고와 뇌옥(腦獄)이 있다. 산과 언덕이 많고, 못이 넓으며, 동이의 지역 중 가장 평창(平敞)하다. 토지는 오곡(五穀)이 나기에 마땅하나, 오과(五果)는 나지 않는다. …… 나라에는 군왕(君王)이 있으며, ㉠ 모두 여섯 가족의 이름으로 관명을 삼으니,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대사(大使)·대사자(大使者)·사자(使者)가 있다.

그 풍속은 형벌이 엄하고 각박하여 사형을 당한 사람은 그 집사람을 모두 적몰하여 노비(奴婢)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해야 되고,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면 모두 죽이는데, 투기하는 여자를 더욱 미워하여 죽인 뒤 다시 산 위에다 시체를 버려둔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삼고, 죽어 장사지낼 적에는 괘(槨)는 사용하지만 관(棺)은 쓰지 않는다. 사람을 죽여 순장(殉葬)을 하는데, 땅을 때는 백 명 가량이나 된다. ㉡ 그 나라 왕(王)의 장사에는 옥갑(玉匣)을 사용하므로 한(漢)나라 조정에서는 언제나 옥갑(玉匣)을 미리 현도군(玄菟郡)에 갖다 두어, 왕(王)이 죽으면 그 옥갑(玉匣)을 취하여 장사지내게 하였다.

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㉕ 옥저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①

## 09.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

제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주도 아래 1894년 6월 25일부터 1894년 12월 17일까지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 약 210건의 개혁안을 제정·실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청·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조선 정부와 일반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러시아를 비롯한 열국의 무력간섭을 우려한 나머지 조선의 친일 정권에 대한 소극적인 간섭에 그쳤다. 따라서 제1차 갑오개혁은 우리나라 개화파 관료들인 군국기무처 의원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차 개혁의 중심적 목표는 정치 제도의 개편이었다. 개편된 관제는 의정부관제안(議政府官制案)과 공내부관제안(宮內府官制案)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왕의 전통적인 인사권·재정권·군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궁중의 잡다한 부서들을 공내부 산하로 통합하여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한편, 종래 유명무실하였던 의정부를 중앙 통치 기구의 중추 기관으로 만들고, 그 밑에 육조(六曹)를 개편한 내무·외무·택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 등 8아문을 분속시켜 그들 아문에 권력을 집중적으로 안배하였다. 아울러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으로 대표되는 대간제도(臺諫制度)를 폐지하고 내무아문 예하에 강력한 경찰 기구로서 경무청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그들의 반정부활동을 탄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881년 이후에 난립한 근대적인 기구들은 8아문의 하나 혹은 그 예하의 국(局)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개편에 이어 관료 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종래 18등급의 관등품계(官等品階)를 12등급으로 축소하여 칙임관(勅任官, 正·從 1 ~ 2品)·주임관(奏任官, 正·從 3 ~ 6品)·판임관(判任官, 正·從 7 ~ 9品)으로 구분하였다. 관료 충원을 위한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선거조례(選舉條例)와 전고국조례(銓考局條例)를 제정하여 주임관과 판임관의 임용권을 의정부의 총리대신 및 각 아문의 대신들에게 부여하였다. 더불어 관원복무기율(官員服務紀律)과 관원징계례(官員懲戒例) 등을 제정하여 관리의 엄격한 공무 집행과 관기 확립을 기하였다. 또한, 청나라와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모든 국내외 공·사 문서에 있어서 개국기년(開國紀年)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오랫동안 조선 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제도 및 관습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문벌과 반상제도(班常制度)의 혁파, 문무존비(文武尊卑)의 차별 폐지, 공사노비법(公私奴婢法)의 혁파, 역인(驛人)·창우(倡優)·피공(皮工) 등 천인의 면천, 죄인연좌법(罪人緣坐法)의 폐지, 양자제도의 개선, 조혼 금지 및 과부재가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사회제도의 개혁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경제 제도에 대한 개혁도 단행되었다. 국가의 모든 재정사무를 택지 아문이 전관(專管)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을 일원화하고, 『신식화폐장정』을 의결하여 은 본위제(銀本位制)를 채택하고 기존의 물납세제(物納稅制)를 금납제(金納制)로 대체하고, 전국적으로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그러나 군국기무처의 의원들은 내란을 기화로 우리나라에 침투한 일본군의 후원에 힘입어 집권한 정치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진한 개혁 사업에는 타율적인 성향이 없지 않았는데 일본인 고문관 및 군사교관의 초빙, 일본 화폐의 조선 내 유통 허용, 방곡령(防穀令)의 반포 금지 조치 등이 그것이다.

①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 6조, ② 1898년부터 진행된 광무개혁, ④ 1884년 개화당 정부가 발표한 혁신 정강 14개조의 내용이다.

【정답】③

## 10. 16 ~ 17세기의 그림

발문은 ‘사람의 문화 반영’과 ‘16 ~ 17세기’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의 문화와 무관하거나 시기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지를 선택하면 된다. ① 이정(1554 ~ 1626)은 조선 중기의 목죽화가이다. 목죽화에 있어서 그는 유덕장(柳德章)·신위(申緯)와 함께 조선 시대 3대 화가로 꼽힌다. 그는 목죽화 외에 묵란·묵매에도 조예가 깊었고, 시와 글씨에도 뛰어났다. 이정은 『풍죽도』(산송미술관 소장)에서 대나무의 줄기와 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대나무의 탄성(彈性)을 잘 나타내었다. ③ 어몽룡(1566 ~ ?)은 조선 중기의 선비화가로 그의 화풍은 조속(趙肅)과 오달제(吳達濟)·허목(許穆)·조지운(趙之耘) 등의 묵매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표작으로는 『월매도(月梅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이 있다. ④ 황집중(1533 ~ ?) 또한 조선 중기의 선비화가이다. 묵포도(墨葡萄)를 특히 잘 그려 이정(李霆)의 목죽(墨竹)과 어몽룡(魚夢龍)의 묵매(墨梅)와 함께 삼절(三絶)로 일컬어졌다. 유존 작품은 극히 희소한 편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폭의 『묵포도도(墨葡萄圖)』 1점이 남아 있을 뿐이다.

② 심사정(1707 ~ 1769)은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이다. 그의 현존하는 작품은 산수화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진경 산수화나 풍속화도 남기고 있으며 도석 인물(道釋人物), 화훼초충(花卉草蟲), 영모(翎毛), 사군자(四君子) 등에서도 능숙한 필력을 과시하고 있다. 산수화의 대표작으로는 『방심주산수도(倣沈周山水圖)』·『강상야박도(江上夜泊圖)』·『과교심매도(淸橋尋梅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촉잔도권(蜀棧圖圈)』(간송미술관 소장) 등이 손꼽힌다.

【정답】 ②

## 11. 공주 송산리 7호분(무령왕릉)

제시된 지문의 ‘공주 시내의 유적지, 송산리 고분군, 연도(羨道, 고분의 입구에서 시체를 안치한 방까지 이르는 길)와 현실(玄室,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 속의 방)을 아치형으로 조성한 벽돌무덤, 금송(金松)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관(棺), 중국 남조 양나라나 왜와의 교류를 짐작케 하는 무덤’ 등을 통해 무령왕릉임을 알 수 있다. 무령왕릉은 1971년 제6호 벽돌무덤 내부에 스며드는 유입수를 막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왕릉의 입구가 드러나 조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굴과 같은 인위적 피해는 물론 붕괴 등의 피해가 없이 완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굴되었다. 송산리 고분군 내 제7호분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석(誌石)을 통해 피장자(被葬者)가 확인된 무덤이므로 무령왕릉이라 부른다.

① 토우(土偶)는 어떤 기형(器形)이나 동물을 본떠서 만든 토기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라 시대의 것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는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뜻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의 동물·생활 용구·집 등 모든 표상물(表象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고대의 토우는 장난감이나 애완용으로 만들어진 것, 주술적인 우상(偶像)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 무덤에 넣기 위한 부장용(副葬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 벽돌무덤은 송산리 6호분으로 활모양 천장의 이중 널길과 긴 네모형의 널방으로 되어 있는데 오수전(五銖錢)이 새겨진 벽돌로 정연하게 쌓았다. 널방 벽에는 7개의 등자리와 사신도, 일월도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무덤 양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벽화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통일 신라의 굴식 돌방무덤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 12.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임시 정부는 상하이 활동기(1919 ~ 1932) → 이동기(1932 ~ 1940) → 충칭 정착기(1940 ~ 1945)의 세 시기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주어진 지문은 충칭에서의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 1940년, ㉡ 1944년 제5차 헌정 지도 체제 개헌, ㉢ 좌·우 합작의 성격을 지닌 1942년의 사실, ㉣ 조소앙이 제시한 인군·족군·국군의 삼군주의를 건국 강령으로 선택한 것은 1941년이다. 그러므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 → ㉢ → ㉡이 된다.



▶임시 정부의 이동◀

【정답】 ①

### 13. 고려 중기 이자겸(? ~ 1126)의 권력 전횡

지문의 그는 이자겸이다. 호족의 시대에서 문벌 귀족 사회로 진입하면서 문벌 귀족은 대를 이어 세력을 키워 갔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경원(인주) 이씨가 대표적이었다.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이자겸은 숭덕부(崇德府)를 설치하고 소속 관료들을 두었으며 자신의 처소를 의친궁(懿親宮)이라 하였다. 또한 1124년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그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부르는 등 권력 전횡을 하였다. 인종(재위 1122 ~ 1146)과 이자겸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신(君臣)과 가족 관계의 충돌로 왕의 신하가 아닌 왕의 외할아버지로서 국정에 관여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권력 전횡뿐만 아니라 재물에도 욕심이 많아 매관매직과 수뢰로 축재(蓄財)하였는데 이는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사방에서 선물이 모여들어 늘 수 만근의 고기가 썩어났다.’ 라고 『고려사』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③ 이자겸의 아들들과 친척들도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등 횡포를 부렸는데(이자겸의 모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인들이 서로 축하할 정도였다고 기록, 『고려사』) 특히 출가한 막내아들인 승려 의장은 교종 법계[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수좌(首座) → 승통(僧統)] 중 다섯 번째 자리인 수좌에 임명되어 종교계에도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①·② 묘청, ④ 1170년의 무신 정변을 경인(庚寅)의 난, 1173년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을 계사(癸巳)의 난이라 하는데 이를 합하여 경계(庚癸)의 난이라 한다.

【정답】 ③

### 14. 장길산의 활동

지문은 『숙종실록』에 기록된 장길산에 대한 내용이다. 장길산(張吉山)은 조선 숙종(재위 1674 ~ 1720) 때 해서(海西, 황해도) 지방의 구월산(九月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한 도둑의 우두머리이다. 조정에서는 장길산을 체포하려고 신엽(申燁)을 황해도 감사로 보내 그 은신처를 급습하기도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1692년(숙종 18) 평안남도 양덕(陽德) 일대로 이동하여 세력을 키운 그를 포도청 장교를 보내 체포하려다 또 실패하자, 양덕 현감(縣監)만을 파직하였다. 장길산은 뒤를 쫓는 관군을 피해 무리를 이끌고 다시 함경도 서수라(西水羅) 등지로 달아나 그곳에서 활약하였다. 1696년(숙종 22) 서울의 서얼 출신 이영창(李榮昌)이 금강산의 승려 운부(雲浮)와 손을 잡고 승려 세력과 장길산의 도적 세력의 힘을 빌려 함께 봉기하여 거사를 도모하려 하였다. 이절·유선기(兪選基) 등이 모반에 대하여 고하자, 왕은 이영창과 그 가족 및 관련된 승려 등을 잡아 국문하였다. 또한 국문청에 하교하기를, ‘극적(劇賊) 장길산은 날래고 사납기가 견줄 데가 없다. 여러 도(道)로 왕래하여 그 무리들이 번성한 것이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여러 도에 은밀히 신칙(申飭)하여 상세하게 정탐하고, 별도로 군사를 징발하여 체포하여 뒷날의 근심을 없애는 것도 의논하여 보고토록 하라.’ 고 『숙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장길산을 체포하면 군문(軍門)과 포청(捕廳)에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장길산은 끝내 잡히지 않았으며, 홍길동(洪吉童)·임격정(林巨正)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도둑으로 알려져 있다.

① 임격정(? ~ 1562)은 본래 경기도 양주(楊州) 지방의 백정이었다. 명종(재위 1545 ~ 1567) 시기 정치적 혼란과 관리의 부패로 민심이 악화되자 1559년 이를 규합하여 황해도와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이후 1562년 남치근의 토벌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③ 홍길동(? ~ 1500)은 연산군(재위 1494 ~ 1506) 대 농민 무장 봉기를 이끈 인물이다. 홍길동은 양반 관리의 복장을 하고 스스로 첨지(僉知)라 하면서 무장한 많은 농민을 지휘하였다.

영의정 한치형(韓致亨)·좌의정 성준(成俊)·우의정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듣건대, 강도 홍길동(洪吉童)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전될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 『연산군일기』 13집

④ 홍경래의 난은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에 반하여 1811년에 일어났다.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여 한때 정주성을 점령하고 청천강 이북 지방을 장악하기도 하였으나 5개월 만에 관군에 진압되었다.

【정답】 ②

### 15.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등재 세계 기록 유산

제시된 기록물 중 『일성록』, 『난중일기』, 『승정원일기』, 한국의 『유교책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비변사등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유신	등재	소장
『훈민정음(해례본)』	1997	✓ 간송 미술관
『조선왕조실록』		✓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가기록원
『승정원일기』	2001	✓ 서울대학교 규장각
『불조직지심체요절』		✓ 프랑스 국립도서관
조선 왕조 『의궤』	2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 경남 합천 해인사
『동의보감』	2009	✓ 국립 중앙 도서관 등
『일성록』	2011	✓ 서울대학교 규장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 국가기록원 등
새마을 운동 기록물	2013	✓ 국가기록원, 새마을운동중앙회
『난중일기』		✓ 현충사
한국의 유교책판	2015	✓ 한국국학진흥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 한국방송공사, 국가기록원 등

【정답】 ③

## 16. 정제두의 양명학 연구

지문은 정제두의 문집인 『하곡집』 권9, 『존언』 하, 「학문자양심지방」 중 일부이다. 정제두(1649 ~ 1736)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며 조선에 전래된 양명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최초로 사상적 체계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세론(經世論)을 전개한 대표적인 양명학자이다. 그는 처음에는 주자학을 공부하다가 일찍부터 양명학에 심취하였다. 당시의 도학은 정통주의적 신념에서 양명학을 이단으로 배척했으나,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양명학의 이해를 체계화시키고 양명학파를 확립하였다. 그는 당시 주자학의 권위주의적 학풍에 대해 학문적 진실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오늘날에 주자의 학문을 말하는 자는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곧 주자를 핑계 대는 것이요, 주자를 핑계 대는 데에서 나아가 곧 주자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그 뜻을 성취시키며,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서 사사로운 계책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왕수인의 심즉리(心卽理)를 받아들여 주자가 마음(心)과 이(理)를 구별하는 것을 비판하고 마음과 이의 일치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기(氣)의 이원화도 거부하고 이 기합일론(理氣合一論)의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이가 마음과 일치되어 마음 밖에 이가 따로 존재할 수 없게 되기에 이가 공허하지 않고 실실하게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제두는 양지(良知), 양능(良能)의 본체성을 근거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긍정하였다.

① 지봉 이수광(1563 ~ 1628)의 저서인 『지봉유설』의 내용, ② 우암 송시열(1607 ~ 1689)이 예송에서 주장한 천하동례(天下同禮), ③ 백호 윤휴(1617 ~ 1680) 또는 서계 박세당(1629 ~ 1703)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 17. 1920 ~ 1930년 해외에서의 독립 운동

㉠ 훈춘 사건(璦琿 事件)은 일본군이 마적 토벌을 구실삼아 훈춘의 조선인과 독립 운동가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으로 1920년 10월에 일어났다. ㉡ 간도 참변(1920. 10월) 이후 북간도 밀산부에 집결한 독립군 조직은 서일(1881 ~ 1921)을 총재, 김좌진(1889 ~ 1930)·홍범도(1868 ~ 1943)를 부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을 결성(1920. 12월)하고 레닌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1921. 6월)하였다. ㉢ 미쓰야 협정은 만주 군벌 장쥔린의 부하인 만주 봉천성 경무국장 우진과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 미쓰야 간의 협의로 1925년 6월에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할 것, 재만(在滿)한 인 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할 것,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 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할 것, 일본은 독립 운동가를 인계받는 동시에 그 대가로 상금(賞金)을 지불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 1930년 7월 북만주(北滿洲) 교민들의 자치기관이던 한족자치연합회(韓族自治聯合會)와 생육사(生育社)를 모체로 하여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이 창당되었다. 한국독립군(총사령 지청천)은 한국독립당의 예하의 군사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므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 ㉠ → ㉡ → ㉢ → ㉣이 된다.

【정답】 ①

## 18.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

제시된 자료는 일본의 경복궁 점령(1894. 6. 21) 이후 9월에 발발한 동학 농민군의 삼례 재봉기와 관련된다. 삼례 재봉기 이후 ㉠ 남접과 북접은 논산에 집결(1894. 10月)하였고, ㉡ 공주 우금치 전투(1894. 11月)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 민보군(民保軍)에 패배하였다. 뒤이은 1894년 12월 17일 보은 북실 전투의 패배로 동학 농민 운동은 종결되었다.

㉠ 황토현 전투는 1894년 4월 7일, ㉡ 전주 화약은 1894년 5월 8일에 체결되었다.

【정답】④

## 19. 조선 후기의 역사서

③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1705, 숙종 31)에서는 단군 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발점으로 강조하였고 기자 조선 → 마한 → 통일 신라의 흐름을 정통으로 규정하였다.

역사서	편찬 시기	저자	시대 범위	특징 · 의의
『동사찬요』	선조, 1606	오운	삼국 ~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자 조선 중시, 신라 중심의 삼국 시대 서술</li> <li>역대 애국명장 소개</li> </ul>
『휘찬려사』	인조, 1639	홍여하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사』 → 강목법으로 재정리</li> <li>왕권 강화 주장, 붕당 정치의 폐단 비판</li> <li>정통국가(기자 → 마한 → 신라)</li> </ul>
『동사(東事)』	현종, 1667	허목	단군조선 ~ 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벌 운동·붕당 정치 비판, 왕권 강화 주장</li> <li>역사의 기원 → 단군으로 파악</li> </ul>
『여사제강』	현종, 1667	유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 → 북방 민족에 항전한 사실 강조</li> <li>북벌 주장, 재상 정치 강조</li> <li>노론의 추앙 사서(송시열의 서문 작성)</li> </ul>
『동국통감제강』	현종, 1672	홍여하	기자 조선 ~ 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붕당 정치 폐지, 왕권 강화 강조</li> <li>남인의 추앙 사서</li> <li>정통국가(기자 → 마한 → 신라)</li> </ul>
『동국역대총목』	숙종, 1705	홍만종	단군 조선 ~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실 중심의 역사 서술</li> <li>단군 조선 → 우리 역사의 시발점</li> <li>정통국가(기자 → 마한 → 통일 신라)</li> </ul>
『동사회강』	숙종, 1711	임상덕	삼국 ~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해 기록 無, 단군·기자 고증 첨가</li> <li>『여사제강』 계승 → 『동사강목』에 영향</li> </ul>
『연려실기술』	영조, 1776	이공익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0여 종의 야사 참고</li> <li>조선의 정치·문화사 → 백과사전식 저술</li> </ul>
『동사강목』	정조, 1778	안정복	단군 조선 ~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군 신화 無 but 단군 조선 기록</li> <li>고구려의 강대함 강조 → 『삼국사기』 비판</li> <li>발해 → 말갈의 역사로 기록</li> <li>삼한정통론 : 단군 → 기자 → 마한 → 통일 신라 → 고려</li> <li>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 탈피</li> <li>성리학적 명분론 기반</li> <li>고증 사학의 토대 → 부록(고이·괴설변증·잡설)</li> </ul>
『열조통기』	영조, 1767~		조선 태조 ~ 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지 → 『반명기전』(盤明紀傳)</li> </ul>
『발해고』	정조, 1784	유득공	발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남북국 시대 → 『대동지지』(김정호) 계승</li> <li>구고(九考, 군고·신고·물산고·국서고 등)</li> </ul>
『동사(東史)』	순조, 1803	이종휘	단군 조선 ~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로 확대</li> <li>단군의 계승 왕조로서 부여·고구려 강조</li> <li>대종교의 역사 인식에 토대 제공</li> </ul>

【정답】②

## 20.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가)는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부터 1951년 1월 14일 서울에서 다시 후퇴하는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① 흥남 철수는 1950년 11월 26일 ~ 12월 11일에 걸쳐 진행된 장진호 전투를 기반으로 1950년 12월 15일(출항 기준)부터 23일까지 흥남 항구를 통해 해상 철수한 작전을 일컫는다.

② 이승만 정부의 반공 포로 석방 사건은 1953년 6월 18일, ③ 맥아더 장군의 유엔군 총사령관직 해임은 1951년 4월 11일, ④ 애치슨 선언은 1950년 1월 10일에 발표되었다.

1950	6월	• 남침(25일) → UN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27일) → 서울 함락(28일)	
	7월	• UN 16개국 참전(1일) → 대전 협정(16일) → 대전 함락(20일)	
	8월	• 왜관 전투(9 ~ 17일) → 다부동 전투(13 ~ 30일)	
	9월	• 낙동강 전선(2일) → 인천 상륙 작전(15일) → 서울 수복(28일)	
	10월	• 38도선 돌파(1일) → 평양 탈환(19일) → 중공군 개입(25일, 본격 참전 11월 27일)	
	11월	• 압록강 전선(25일) → 장진호 전투(26일~)	
	12월	• 흥남 철수(15일 ~ 23일)	
1951	1월	4일	• 1·4 후퇴 → 중공군의 최대 남침선(평택 ~ 삼척), 국민 방위군 사건
	2월	11일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3월	14일	• 서울 재(再) 수복
	4월	11일	• 맥아더 장군 → 유엔군 총사령관직 해임
	6월	23일	• UN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의 휴전 협상 제의
	7월	11일	• 휴전 회담 시작(개성시 고려동 내봉장) ✓ 유엔군 : 자유 송환 방식 and 접전 지역(교전 상태 반영) ✓ 공산군 : 자동(강제) 송환 방식 and 38도선
	12월	23일	• 자유당 창당 → 이범석의 조선 민족 청년당 기반
1952	7월	7일	• 발체 개헌(1차 개헌)
	8월	5일	• 제2대 대통령 선거
	11월	4일	• 아이젠하워 34대 미(美) 대통령 당선
1953	3월	5일	• 이오시프 스탈린 사망
	6월	18일	• 거제도 반공 포로 석방 사건
	7월	27일	• 휴전 협정 체결 ✓ 美·中·北 Sign ✓ 포로 자유 송환 and 접전 지역 ✓ 중립국 감시 위원회 → 스위스·스웨덴 and 체코·폴란드
	10월	1일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4	4월	26일	• 제네바 회담
			✓ 한국 + UN 참전국 + 북한 + 중국 + 소련 ✓ 6·25 전쟁 전후 문제 논의 → 결렬

【정답】 ①